

지혜는 세월을 앞선다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대설 지나 며칠, 이제 2023년은 이십 일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무언가를 돌아보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려 한다. 특히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생일을 보내면서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으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도 한다. 문득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크랩은 생일이 되면 녹음을 하는 자신만의 행사를 갖는다. 그렇게 45년 동안 생일마다 녹음을 해왔다. 극 중 장면은 69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녹음을 하려는 장면이다. 이 의례적인 행사에 앞서 그는 지난 시간 중의 어느 생일날 녹음을 들어본다. 39세의 생일날을 선택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복잡하고 슬픈 마음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추억이 스친다. 그 녹음 안에는 또 지난 25살인지 27살인지 정확하지는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불안이 스치는 생일날 녹음을 듣는 소리도 들린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다. 39세의 녹음에서 27세쯤의 자신을 어리석고 유치하다고 평가하는데 69세의 생일날도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려는 39세의 자신의 판단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런 미숙하고 혼란스러운 젊은 날이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분명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고 만나지도 못한 무엇 때문에 고독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이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는 베케트의 자전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69세의 생일날 그는 혼자서 바나나를 먹으며

지난날의 시간으로 돌아갔다가 녹음기를 되돌려 반복해서 듣다가 생각에 빠지다가 여러 번 침묵에 잠긴다. 마지막까지 그는 69세 생일 기념 녹음을 못한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한 것도 기억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녹음 속의 39세의 젊은 그의 목소리가 무대를 채운다. 고독한 가운데 30년 전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회한과 그리움의 침윤일 것이다. 사람 속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기억 속에는 언제나 현재여서 크랩

은 69세이지만 지금은 39세에 멈춰 있을 것이다.

내년 2024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가을부터 뉴스로 접했다. 생활이 안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노인 기초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겠지만 노인들이 느낄 고독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공급하다. 작가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래전에 죽은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찾아 그를 추방하는 것으로 형벌을 설정했다. 그리이스인들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독과 추위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앞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면 나라 전체도 어둡고 우울할 것이다.

말리 출신 작가인 아마도우(Adadou Hampate Ba)는 1960년대 유네스코 회의장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노인이 죽으면 한 개의 도서관이 불타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와 전통이 구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겠지만 진정 이 말은 어느 시대나 사

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책에 기록된 이론만으로 살 수 없다. 앞으로 AI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통한 지식과 직관은 삶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 앞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통계와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노인의 지혜는 시간의 숙성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삶의 결과이므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일천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보다 노인들이 고독감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들이 지혜를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넷플릭스에서 지난 11월부터 방영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더 체린지〉의 최후 승자는 베트남 출신의 55세의 여성이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그녀는 456명의 참가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 비결은 난민으로 이방인으로 35년 넘게 살아온 그녀만의 지혜와 삶의 경험에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들의 시간이 축적한 지혜와 경험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기고

운동현

역사청년 유튜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운동현입니다. 저는 29년을 광주에서 살았고 직업 업무상의 이유로 한 달 전 대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제가 대전에 와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와 대전의 공통점, 유사한 특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학자 이어령처럼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연경관과 행정구역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광주의 동쪽에는 ‘광주의 어머니 산’이라고 불리는 무등산이 있고, 대전의 서쪽에는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영산강의 지류인 광주천이 광주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대전은 금강의 지류인 갑천과 거기서 나오는 유등천, 대전천 물줄기를 따라 지역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대전은 북동쪽에 청주, 북서쪽에 세종, 남서쪽에 계룡, 남동쪽에 옥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북동쪽에 담양, 북서쪽에 장성, 남서쪽에 나주, 남동쪽에 화순이 있습니다. 두 도시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각 붙어있는 근접 도시들과 긴밀

광주와 대전 공통점과 유사한 특성

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중앙밀집을 막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차로 30~40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각각 세종특별시와 나주혁신도시가 있고, 각각 충청매가시티(대전, 청주, 세종, 천안) 그리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광주, 무안), 동권역의 관광정책(광주, 담양, 나주, 목포)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고 간단하며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부터는 검색만으로는 알기도 어렵고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양식입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자연경관 중 산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은 무등산이 너무 높고 올라가기 힘들다느니 가볍게 올라가거나 야경을 보러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바로 금당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사람들에게도 그런 산이 있습니다. 바로 보문산입니다. 행정구역상 두 도시의 시청이 모두 서구에 있고, 각 도시의 원도심이었던 광주의 충장로(금남로)와 대전의 은행동(또는 중앙로)은 동구에 있었으며 현재 신도심인 광주의 상무지구와 대전의 둔산동(일각에서는 봉명동도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이 모두 서구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역사적 시각을 하나 추가하자면, 두 원도심에는 각각 특수한 역사나 역사적인 장소 그리

고 그 역사를 지키고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충장로 옆에 동명동 카페거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에는 은행동에서 대전역을 지나면 소제동 카페골목이 있는데, 카페가 밀집된 두 장소에는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 동명동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부유층이 살았던 동네였고(그래서 일식 또는 서양식 근대가옥도 있지만 보존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소제동은 과거 일제시대에 철도 관사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서 대전 은행동 근처에는 ‘데미오레’라고 하는 문화공간이 있고 광주 충장로 근처에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곳들은 현대적으로 재개발되지 않고 건물과 시설이 잘 보존되어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모두 기차역이 두 곳이 있는데 대전역과 광주송정역은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많이 다니고 서대전역과 광주역은 무궁화나 새마을 같은 일반철도가 많이 다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자는 대구도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처럼 두 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할 텐데 대구는 두 역이 서로 연결되어 기차로 다닐 수 있지만 광주와 대전은 두 역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광주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가 있지만 2023년 말 폐지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떠나서 한 기차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중 한 역에 갔다가 다른 한 역으로 이어서 가는 열차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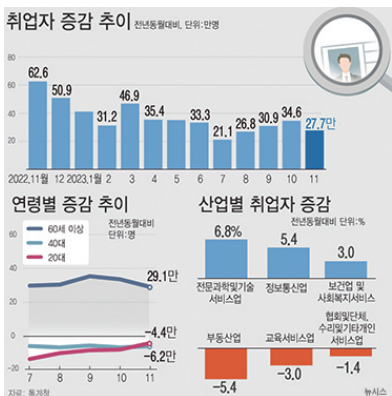
마지막 셋째로 역사문화입니다. 사실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이나 광주학생항일운동 같은 하나의 거시적 사건들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재밌는 사실은 두 도시 모두 4·19혁명의 단초 또는 불씨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은 ‘대전3·8민주의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광주는 ‘광주3·15의거’(또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각 사건에 대해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해 항거했다는 내용과 4·19혁명보다 앞서 일어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만큼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원 같은 장소나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비석을 세우는 등 역사문화 보존 노력이 많은 것에 비해 광주는 다른 큰 역사적 사건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대전은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의 ‘주남마을 버

스 총격 사건’과 대전의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입니다.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사건이고,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은 6·25전쟁 당시 군인들이 민간인 채소자(사상범 또는 정치범들이었다고 합니다.)들을 산골짜기에 끌고 가서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사건이 일어난 위치가 비슷하게 각 도시의 남동쪽의 외곽 지역이라는 것이고, 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사망자들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던, 광주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며 5·18과 전혀 무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말 그대로 채소자들은 사상적 또는 정치적 혐의만 있었지 어느 분명한 사실과 행동에 의해 사형 집행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만 했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군인들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진상규명되지 않았고 다른 큰 사건에 묻힌 채 제대로 된 조사도 실시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저와 같이 광주와 대전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혹시 모를 두 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하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독자투고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면 싸움을 할 때마다 다 이긴다는 뜻인데 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 중인 마약 관련 사건 앞에서 우리가 마약에 관해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

마약은 이제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특정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 확실한 대책은 마약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깊은 중독에 빠져 피폐해지고 만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약중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마약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듯이 마약에 노출되기 전에 교육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은 호기심으로 한번 했다가 평생 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최고의 사회악인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할 것이다.

전창수<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